

# 외 부 원 고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 회장 / 강 지 혜

## 伯牙絕鉉 (백야절현)

伯牙絕鉉(백야절현).....

거문고의 명수 백아는 그의 음악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벗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거문고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99년 12월 5일 친구를 보내게 되었을 때 그 옛날 백아의 슬픔을 시공을 초월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스물 셋에 백혈병으로 그 고통을 다 겪다가 그 예 세상을 버리다니.

언제나 나를 격려해주고 가능성을 믿어 주었던 벗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목소리, 그 미소가 지금도 선하건만 그가 한 줌 재가 되어버렸다니.....내가 느껴야만 했던 그 상실감과 비통함을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주르륵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러다가 비록 벗은 세상에 없지만 내가 골수기증을 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친구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골수기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사회 전반에 골수기증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수기증희망자가 3

만2천여명 정도라서 수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다음”에서 골수에 대해 검색해 보았더니 별별 동호회가 다 있는 “다음”에 골수에 대한 동호회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 내가 한 번 카페를 만들어볼까’ 하다가도 ‘내 실력에 어떻게 카페를 만들고 운영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숨을 거두기 10여분 전까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가여운 친구가 떠올랐다. 내 비록知音을 그렇듯 보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슬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충격과 상실감, 허무함,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겪는 것이 싫었고,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그런 이별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골수기증에 대한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이 골수기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돕고 아울러 골수기증을 권해야겠다, 결심을 했다. 결심이 일단 서자 태그를 배우고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골수기증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수집해서 부지런히 카페를 꾸며 나갔다. 카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심하다가 평소 좋아하는 ‘사

월의 노래' 중의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는 시구를 떠올렸다. 사월이 오면 온 누리가 생명의 빛으로 찬란하듯, 우리 이웃의 꺼져 가는 생명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라 지었다.

2001년 9월 28일 카페 문을 열었는데 카페 간판은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 이긴만, 실제로는 나 혼자 적적한 카페를 지켜야만 했다. 한달 동안 회원이 한 명도 없으면 자동적으로 카페가 폐쇄된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보름이 좀 지나자 한 분 한 분 어떻게 알고 카페를 찾아오셨다. 어찌다 회원이 한 명 늘어나면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지만, 그래봤자 한동안 회원 수는 다섯 명 안팎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골수기증의 아름다운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더욱 열심히 자료를 모으러 다녔다. 회원이 차츰 차츰 늘어나면서 카페의 자료를 읽고 골수기증에 대한 그간의 오해를 떨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골수기증 요청을 수락하시는 분들은 내 삶의 큰 기쁨이고 보람이며 자랑이다.

이제 회원이 150여 분이 되고 그 중 언제든지 기꺼이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스물 세분이다. 실제로 골수를 기증하신 분들도 일곱 분이 나 되고 한 분은 골수기증을 요청하는

환우를 위해 정밀검사를 받으며 기증할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 또한 골수기증을 하신 분들과 아직 기회가 닿지 않아 못하신 분들간의 정기 채팅 시간은 골수기증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머지 않아 off line에서도 모임을 가지고 골수기증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아낌없이 나누는 분들과 사이버상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골수기증을 해서 그 환우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회원님들한테 전해들을 때면 정말 친구가 다시 살아난 것만 같아 기뻐서 눈물을 글썽인다. 고통받는 이웃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기꺼이 나누는 것을 고귀한 의무로 여기는 사람들...이 분들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명의 빛으로 온 누리가 충만한 오월 이긴만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의 무관심과 오해 때문에 골수를 기증 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 생명의 등불이 차츰차츰 꺼져 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이웃의 꺼져 가는 생명의 등불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실 고귀한 분들을 기다리며 카페에 자료를 업데이트 하러 다닌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바로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